



부산국제금융진흥원

보도사항

담당부서

금융정책실

실장 박영호 (051-631-0281)

매니저 성채운 (051-631-0285)

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금융중심지 정책토론회 개최

- 부산형 모델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의 사업화 및 지·산·학·연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방안을 논의 -



부산국제금융진흥원(원장 김종화)은 지난 20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‘부산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’를 개최했다.

세미나는 부산형 모델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의 사업화 및 지·산·학·연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.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한 세미나에는 부산시, 학계 및 연구계, 산업계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다수의 전문가가 참석했다.

세미나는 김종화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, 연구용역 결과발표,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.

‘대내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바람직한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수립 및 부산형 발전모델 구축’을 주제로, △여은정 교수(중앙대)와 △윤승영 교수

(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)의 발표가 40분간 이어졌다.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이 끝난 뒤에는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의 주재로 종합토론이 100분간 이어졌다.

종합토론에서는 연구용역에 대한 건설적인 피드백과 냉정한 정책평가를 바탕으로, 연구용역 결과의 사업화 및 지·산·학·연 협력기반의 추진방안을 모색했다. 특히 차별화된 부산금융중심지 모델 구축을 위해 다양한 견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.

진흥원은 주요 참석자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,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위한 지역 역량 결집 및 부산 금융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.

